

4부

젠더, 민족, 이주



X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육 영 수
중앙대학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억이 수동적인 사실의 보관소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 해내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에게 구술자료의 특수한 유용성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기억이 가져오는 변화들에 있다.”¹⁾

“기억은 과거의 한순간에 완전히 고정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 순수한 기억은 없고, 단지 회상이 있을 뿐이다. 즉 기억은 항상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간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적 자료로서 기억의 내용보다는 기억의 발달 단계에, 그 신빙성보다는 기억의 작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²⁾

들어가며: 우연한 만남

2023년 6월 한 달을 독일 서남부에 있는 튀빙겐대학교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신분으로 보낼 기회를 얻었다. 한국학과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게스트하우스 Gästezimmer 를 예약했는데, 현지 도착 당일에

그 집 안주인이 간호인력으로 독일로 건너온 지 50년이 된 팔순 할머니(오현주, 1942년 말띠 태생)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쁜 정원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 3층 방을 배당받아 첫날밤을 보내면서 문득, ‘오 여사 생애에 대한 구술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찾아왔다. 미시사, 기억문화사, 일상생활사, 트랜스 내셔널 역사학 등 내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익혔던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응용한 사례연구에 도전해 볼 기회이리라. 무엇보다도 ‘죽은 텍스트’보다는 ‘살아있는 사료’를 마주하는 구술사의 색다른 매력 또는 위험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다음날, 나의 ‘밤샘 결심’을 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그녀의 흔쾌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대략 총 24시간 분량으로 구술면담이 진행되었다. 숙소 1층 오 여사 정원에서의 바비큐 저녁 식사, 집 부근 보리밭 너머 숲길 산책과 야외 소풍, 막내딸·사위 집 뜰에서의 바비큐 점심 파티, 오 여사가 경영했던 튀빙겐 중심가 옛 피부-미용실 가게 자리 답사, 카레밥과 만두를 함께 만들어 먹는 저녁 식사 모꼬지, 오 여사가 담근 막걸리와 독일식 순대를 곁한 오후 새참 깜작 모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술사를 위한 사료 채집을 함께 엮어갔다. 오 여사 배우자(Mr. G라고 부르겠다)는 가끔 잠깐씩 참석했고, 나의 아내는 일종의 옹저버로 대부분 구술사 미팅에 동참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도록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속기록을 남겼다.

구술 채집의 기억이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귀국 즉시 원고 쓰기에 돌입했다. 구술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연관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적 지식’을 보태 반죽한 초고를 일단락했다.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백으로 남겨진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긴 x톡 통화를 했다. 또한 추가 질문을 문서로 만들어 보낸 이메일에 오 여사가 몇 차례에 걸쳐 보낸 음성녹음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수정 원고를 갈무리했다. 별도로 오 여사의 가족 구성원(아들딸·사위 며느리·손녀 손자 등)에게 오 여사의 배우자를 증계자 삼아 “본인이 간직한 어머니/할머니와 연관된 좋았거나 나쁜

기억과,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가 본인에게 끼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장녀의 장남(외손자)과 막내 따님이 마감일까지 보낸 답변도 최종 원고 완성에 귀한 자료가 되었다.

독일로 간 이주노동자에 관한 구술사 선행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제법 축적되어 있다. 1960~70년대 독일파견 광부와 간호인력에 관한 기초 조사와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주도했던 사회운동이 한독관계사와 한국 현대사에 남긴 발자취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현재진행형이다.³⁾ 그러나 많은 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인력수출과 근대(민주)국가 만들기라는 거대 담론에 짜 맞춰 독일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표준화·보편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욕망과 개인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와 약점을 보였다. 그리고 구술사를 여성사와 공공역사^{Public History} 등과 접목하여 두텁게 실행함으로써 각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⁴⁾ 독일인과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와 한인 1세대~3세대를 아우르는 사례연구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⁵⁾도 이 글을 비틀거리며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되었다.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맺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농도 짙은 사건”으로 꼽히는 간호인력을 통한 한국과 독일의 관계 맺음⁶⁾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위에서 요약한 선행연구의 해석상의 편견과 약한 고리 및 공백을 고치고 메우며, 다양한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횡단·연결하기 위해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식민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난 오현주가 해방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제주도→부산→대구→서울 등지로 유랑하면서 공장의 여성 노동자로 생존하며,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독일에 파견되기까지의 32년의 고된 삶을 추적한다. 후반부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되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던 오현주가 독일 남성과 재혼한 후에 튀빙겐으로 옮겨서, 주경야독으로 피부미용관리사와 헤어-드레서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을 경영했고, 은퇴

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변신한 사연과 그 파란만장한 과정에서 영킨 한 인사회와의 관계와 사랑하며 미워했던 대가족의 역사 반세기를 스케치한다. 논문 제목에 묻어있듯이, 오현주의 생애를 우리 현대사를 폭력적으로 옥죄었던 ‘민족주의’라는 뒷에서 구출하여 그 격자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개인으로 재발견하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의도이다.

한국에서 보낸 서른 몇 해: 일본에 태줄을 묻고 ‘고향’ 제주도로 건너와 부산, 대구 찍고 서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 여사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다. 각기 다른 이름마다 그녀의 인생 역경과 무게가 매듭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일본 혼슈의 북쪽 끝에 있는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호적에 올린 첫 이름은 ‘오 임자_{吳林子}’이다. 오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임씨 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으로, 일본식으로는 ‘릿코’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16세 때에 고향 제주도에서 ‘본토’ 일본으로 이주하여 운동화 공장을 경영하던 청년 실업가였다.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사업하는 아버지(오 여사의 외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와 속성으로 부부관계를 맺었다. 어머니는 오 여사를 낳다가 1942년에 2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도쿄로 옮겨 일본 여자와 재혼하여 아들(오 여사의 이복동생)을 낳고 이혼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다시 결혼했지만, 29세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줄지에 고아가 된 벌거숭이 ‘오임자’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1948년에 본가와 외갓집 있는 제주도로 ‘귀국’했다.

어린이 오임자는 외갓집에서 키워졌다. 외할아버지는 귀국 후 1년 만에 사망했고, 외할머니가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비교적 부유했던 외할머니는

불쌍한 외손녀를 잘 돌봐 주었다. 고아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오임자는 13살 때에 초등(국민)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음악 수업 장기 자랑 시간에 아버지 ‘18번’이었던 “짜고동 울어울어 연락선은 떠난다.”라고 시작하는 유행가(?)를 불러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7살 나이에 부산 방직 공장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다. 타향에서의 홀로서기를 앞두고 불안했던 딸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임자야,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는 그를 쫓으며 “아버지,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외치며 잠이 깨었다고 오 여사는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청소년 때 겪은 공장노동자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오 여사는 회고했다. 기계가 직조하는 비단실이 끊어지면 달려가서 손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12시간 연속으로 하고 30분의 짧은 휴식을 가지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다. 화장실 다녀와서 잠시 졸 시간마저 빠듯했던 피곤한 공장 살이었다. 그래도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공장 사장님이 아침 6시에 열어주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을 만큼 오임자는 성실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부산에서 보낸 후, 친구 소개로 월급을 더 준다는 대구 방직공장으로 옮겨 2교대 야간작업에 청춘을 갈아 넣었다. 그 후에는 외할머니 친구 아들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 방직공장으로 옮겨 일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공순이’ 오임자는 이탈리아 신부님이 주임으로 있는 영등포 성당에서 ‘요세파’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에 건너와서는 먹고사는 일에 바빠 지난 50년 동안 성당에 출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처럼 ‘무신앙인’이라고 오현주는 밝혔다.

여공 오임자-요세파는 당시 기준으로는 혼기가 찬 처녀이기도 했다. 그녀는 제주도 외할머니 증매로 제주도 청년과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분홍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맺어졌다. 영등포 자취집 주인아주머니가 근처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객지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웠던 오임자는 21살에

그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의 고향인 인천 영흥도에서 족두리 쓰고 전통혼례식을 치렀다. 이미 임신 8개월이었던 그녀는 시댁에서 첫딸을 출산하고 영등포로 돌아왔다. 시할머니가 육아와 살림살이를 돌봐 주었고, 이들 신혼부부는 각자의 직장에서 맞벌이했다. 첫딸은 1964년, 둘째 딸은 1966년에 각각 태어났다. 오임자는 남편의 심한 음주와 도박 등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27세인 1970년에 이혼했다. (전) 남편이 두 딸 양육권을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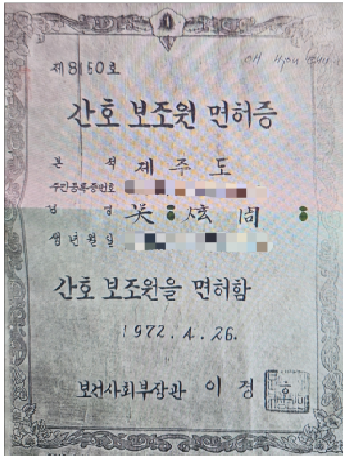
“나의 새 이름, 나의 다른 삶”

이혼 후 아모레 화장품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오임자’는 20대 후반에 ‘오현주^{吳炫周}’로 새로 태어났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이혼녀’라는 주홍 글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이름난 점쟁이(명리학자)는 상처와 고생으로 얼룩졌던 ‘오 씨와 임 씨의 자식’이 ‘두루두루 세상을 골고루 밝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작명으로 기원했다. 호적제도가 엄격해서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제주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친척 오빠가 봐줘서 통과했다. 새로운 명찰을 단 그녀는 빛나는 미래를 설계했다. 부산 여공 시절에 공장 부설 야간 중학교 과정을 어렵게 이수했던 오현주는 경기도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던 <인화여자종합고등학교^{仁花女子綜合高等學校}>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1972년 2월에 졸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직인이 찍힌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받았다. 그리고 독일에 파견할 간호조무사를 선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오현주는 “한국에서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독일 이주를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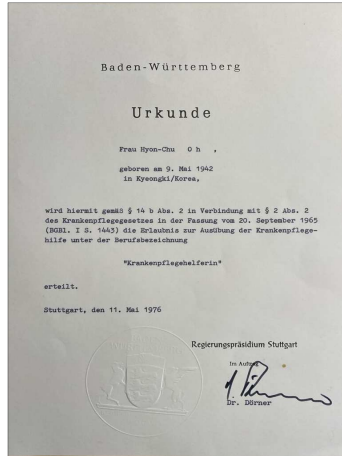
배경지식으로 덧붙인다면, ‘간호조무사’라는 지금의 공식 명칭 이전에는 ‘간호보조원’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독일파견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으로 창출된 직업군이다. 상습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의 특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일에 파견된 간호인력 때문에 정작 한국에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해결하는 묘책으로 간호조무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설 간호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는 1966년부터 독일에 파견되었고, 1971년 이후에는 해외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교육하여 9개월 이론 공부와 3개월 실습 과정을 수료한 9,800명에게 1971~1974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었다.8)

〈사진자료 1〉



오현주가 1972년에 한국에서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1965년에 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에 따라 오현주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증한 1976년에 발급된 공문서. 마지막 사진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 자료는 오현주가 제공한 것임.

파독 간호조무사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본인의 남다른 노력과 우연한 행운 덕분에 오현주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파독 간호조무사 후보에 뽑혔다. 1차 선발된 이들은 당시 신촌에 있던 ‘외관’(해외개발공사)에서 해외 파견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독일 체류 경험이 있던 중년 남성이 강사였는데, 그곳에서는 나이·직업·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너/당신’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가르침이 새로웠다. 정규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녀에게는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하늘이 도왔는지 사돈 친척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와서 오현주가 작성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그가 정답을 적어넣은 답안지와 바꿔치기해서 낙방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신체검사에서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파독 간호사 신체조건이 체중 42kg 이상이었는데, 체중미달(40kg)이었던 오현주는 은행에 다니던 친척 동생의 기발한 아이디어—동전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체중을 상향 조정—덕분에 통과했다. “잘 살아야 한다!”라는 죽은 아버지의 염원이 살아있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실현되어서 오현주에게 파독 간호조무사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던 것일까.

독일에서 보낸 ‘꿈만 같았던’ 반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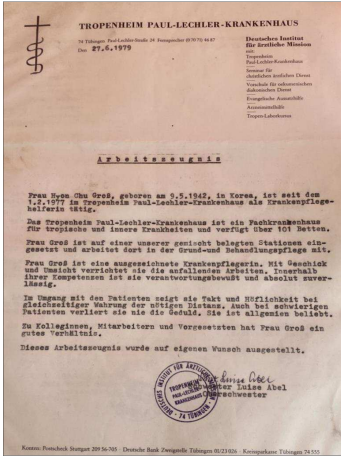
오현주는 1974년 초여름에 마침내 독일로 날아갔다. 간호인력 독일파견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1976년에 종료된 것을 상기한다면, 그 끝 물결에 간신히 올라탄 것이었다.¹⁰⁾ 3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앵커리지를 거쳐 20여 시간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독일 도착 후 오현주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다른 13여 명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바트 칸슈타트 적십자 병원(Krankenhaus vom Roten Kreuz(현재도 있음))에 배치되었다. 독일어 교육은 한국에서 6개월과 독일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배웠지만, 일상 회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오현주는 사설학원에서 보충수업을 받았다. 근무 첫날인 7월 3일 아침에 병원 식당에서 독일인 직원들이 잼/버터를 바르기 위해 빵을 (가로로) 자르는 모습을 흘끗 엿본 한국 여성들은 모두 빵을 (세로로) 잘라먹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요구르트를 (두부인

줄 잘못 알고) 삶아서 환자에게 주거나, 손톱 가는 치즐로 환자의 치아를 닦아(?) 주는 실수를 한 동료도 있었다고 오현주는 웃으며 회상했다. 언어 불통이 빚은 ‘문화충돌’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른 구술사에서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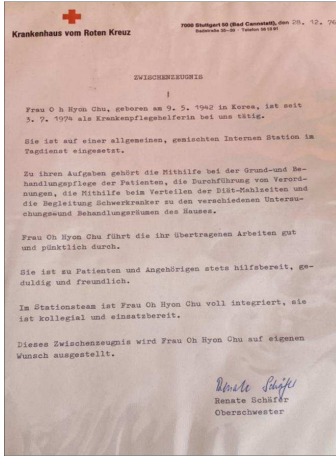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묻자, 오현주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대답했다. 환자 식사 먹여주기에서 대소변 갈아주기 등 거의 모든 허드레 돌봄 작업이 간호조무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였다. 실제로 바트 칸슈타트 적십자 병원의 수간호원은 오현주가 맡은 주요 업무를 “환자의 기초 케어와 치료 보조, 처방 투약, 식단 배급, 중증 환자의 각종 검사 및 치료실 이송 등”이라고 명시했다.¹¹⁾ 독일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간호여성(Krankenpfleger)’은 병원 입원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치료 보조행위는 물론, 환자 목욕 시키기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마사지와 배변 활동 등 기본간호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했다. 엄격히 따지자면, 몇 년에 걸친 전문 교육과정을 졸업한 간호사(Krankenschwester)와 단기속성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Krankenpflegehelfer) 두 집단을 포함한 상위개념이다.¹²⁾ 파독 한국 간호인력이 ‘간호여성’이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구별 없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에 많이 종사했던 배경이다.

당시 한국 간호인력은 환자와 언어소통은 서툴렀지만 상냥하고 성실하여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오현주도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근무했던 병원 부서의 책임자가 작성해 준 문서(추천서와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오현주는 “책임감이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고 “까다로운 환자를 대할 때도 그녀는 결코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고 칭찬했다.¹³⁾ ‘인내심(Geduld)’을 최고의 미덕과 직업윤리로 꼽은 두 독일 수간호원의 평가는 오현주 뿐만 아니라 파독 한인 간호인력 대부분에게도 적용되리라. 일찍이 1968년에 원조 ‘국민가수’ 이미지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전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목매어 부르짖지 않았던가.

〈사진자료 2〉



슈투트가르트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오현주 요청으로 작성해
준 추천서



튀빙겐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작성한 오현주의 취업 증명서.

“나는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다.”

병원 기숙사에서 살았던 오현주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다. 환자들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들린 식당 부엌에서 야쿠르트를 끓이고 있는 Mr. G와 우연히 마주쳤다.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가정교육 받았던 보통 한국 남자와 다르게 부엌살림을 하는 서양 남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갓 20세였던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로 징집 의무를 거부하고 병원에서의 1년 대체 근무를 수행 중이었다. 징집거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달 동안은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Mr. G는 설명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해 전투행위를 위한 병역을 강요받아서 안 된다.”라는 명기함으로써 “헌법에서 병역거부를 보장한 최초의 서구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통과된 병역법 제25조 1항은

“양심의 이유로 무기를 든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제도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¹⁴⁾ “전쟁보다는 섹스!”라는 구호를 외쳤던 ‘68혁명 이후에는 징집 거부자들이 증가했는데, 이들 대체 복무자들은, Mr. G처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진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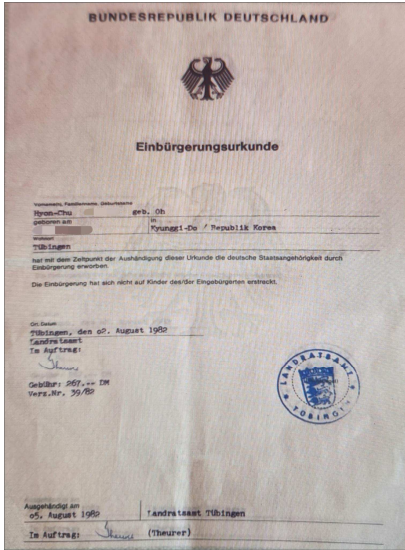
슈투트가르트 병원 기숙사에서 한복차림으로 찍은 오현주와 Mr. G의 결혼 기념사진.

오현주와 Mr. G는 우연한 처음 마주침을 일어 교섭을 핑계 삼아 필연적인 인연으로 만들었다. 파견 간호인력의 기본자격조건이 ‘아이가 딸리지 않은 미혼여성’¹⁵⁾이었기 때문에, 30세 초반의 이혼녀이며 본국에 두 명의 딸을 오현주가 떠들썩 연하 독일 남자와 연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시 한국인인 기준으로는 ‘남사스러운 사건’이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한 사랑은 결혼 약속으로 발전했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마친 Mr. G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인력이 되고자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튀빙겐에서 간호 전문교육 과정을 신청했다. 오현주는 그를 따라 1977년 초에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의무 고용 기간 3년을 몇 달 못 채우고 간호조무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계약위반 범칙금으로 전년도에 받은 성탄절 보너스를 반납해야만 했다고 오현주는 아쉬워했다. 그녀는 1977년 2월부터 튀빙겐 소재 트로피컬 클리닉 폴 레클러 병원Tropenlinik Paul-Lechler Krankenhaus에서 근무했다.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던 오현주는 3년 연애 끝에 마침내 1977년 Mr. G와 결혼했다. 슈투트가르트 시청에서 간소하게 기념식을 하고 오현주는 ‘Hyon-Chu G.’라는 서양어 새 이름을 부적처럼 획득했다. 파독 간호인력의 30%인 대략 600~700명이 독일인과 결혼했다는 통계¹⁶⁾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연애 시절 사진에 찍힌 신랑 Mr. G는 장발에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른 자유로운 영혼의 히피처럼 보였다.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비혼자였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사귀었던 붙임성 많은 그녀가 계약만료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말했다. 결혼식에는 동료 간호사 몇 명만 참석했고 시댁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신랑이 어릴 적에 사망했고, Mr. G와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냉담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종사촌 동생이 부부 한복과 이불 등을 결혼 선물로 보내주었다. 결혼 5년 후인 1982년 8월에 오현주는 독일귀화증명서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발급받았다.

〈사진자료 4〉



서독 정부가 발행한
오현주의 귀화 증명서.

신혼생활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한국에 두고 온 딸 걱정으로 오현주가 시름이 잠겼기 때문이었다. 새색시의 불행했던 과거(이혼)를 알고 있던 Mr. G는 두 딸을 독일로 초청하여 입양하는 데 동의했다. 오현주는 옛 남편에게 두 딸을 먼저 독일로 데려오는데 협조한다면 나중에 그도 초청하겠다고 전략적인 거짓말을 했다. 두 딸은 각각 13세(1964년생), 11세(1966년생)인 1977년에 독일로 왔다. 도착 첫날 부부가 살림을 차렸던 공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선 두 딸은 엄마가 젊은 백인 남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양탈을 부리는 자식에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자신(오현주)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옛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몽치를 보여주었다. 당시 오현주가 받았던 월급 1천3백 마르크 중에서 1천 마르크를 양육비로 한국에 보내주었지만¹⁷⁾ 피 같은 그 돈이 그(아빠)의 술값으로 탕진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두 딸은 어머니와 화해하고 독일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런데 스몰이 조금 넘는 ‘입양 아버지(Mr. G)’와 ‘입양 딸’의 나이 차이가 열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힘든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사회복지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두 딸이 잘 성장하는지 점검했고, 두 딸은 법정 보호자 없이 출석하여 본인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Mr. G의 가족이 되고 싶은지 등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한국 일간지에도 두 딸의 입양 수속을 공지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두 딸은 공식적으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서양식으로 바뀌며 아버지의 성을 얻었다. 지금은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된 두 딸이 단 한 번도 “괜히 먼 독일로 데려와서 고생시켰다.”라고 원망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오현주는 덧붙였다.

네 명의 가족이 겪은 튀빙겐에서의 초창기는 힘들었다. 인종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특히 아팠다. 지리적으로 독일 서남부 쾰트머리에 있는 튀빙겐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동양인이 매우 적었던 소도시였다. 오현주 가족이 지나가면 발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을 쏘았다. ‘슬리츠아우겐Schlitzauge’—‘옆으로 길게 찌진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모멸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튀빙겐¹⁸⁾에 살기 싫다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자신의 간호교육 수련이 끝날 때까지 참아달라고 Mr. G는 애원했다. 인종적인 불관용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Mr. G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가 어릴 때 놀러 나갔다가 “칭챙총(ching chang chong(중국놈?))”이라고 손가락질당해 얼굴을 붉히며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양 여자와 결혼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없었는가?”라고 내가 Mr. G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가난한 동양 여자를 돈으로 사 와서 아내로 삼았는가?”라는 놀림을 당했었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라고 그는 (요즘 유행어로) ‘쿨하게’ 대답했다. 오현주는 멋지고 부자인 독일 남자와 결혼했던 동료들이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김치’라고 따돌림 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맞장구 아닌

맞장구를 쳤다.

튀빙겐에서 남편이 간호 수련을 마무리하는 동안,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근무를 1981년 봄까지 계속했다. 독일 환자들로부터 “당신의 손은 비단^{Seide}처럼 부드럽고 도자기^{Porzellan}처럼 매끄럽다.”—오 여사는 갑자기 독일어로 그때 그 장면을 묘사했다—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피부미용 관리사로 일하면 손님이 많겠다는 오지랖 넓은 제안에 오현주는 솔깃했다. 환자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간호조무사와는 다르게 피부미용 관리사는 고객이 얼굴 팩을 하는 짬을 내서 아이들을 잠깐 돌볼 수 있다는 점도 직업을 바꾸는데 고려 사항이 되었다고 오현주는 설명했다.

오현주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앞뒤 따지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MR. G와의 사이에 첫 아이(아들)를 잉태 중이었던 오현주는 6개월 임신 휴가를 이용하여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싹짓돈을 털어서 슈투트가르트 피부미용학원 6개월(1981년 6월~12월) 과정에 등록했다. 기다리던 첫아들이 1981년 2월에 태어났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에 쫓겨서 둘째 딸이 초등학교를 휴학하고 갓 태어난 남동생을 돌보도록 임시조처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지하실 벽에 전시해 놓은 1982년 12월 31일에 발행된 자격증^{Diplom: Akademie Für Kosmetik}에는 Hyon-Chu G.라는 이름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다. 막내인 딸이 오빠와 한 살 터울로 1982년에 출생했다는 가족 연대기에서 되짚어 보면, 임신·육아·취업 공부·개업 준비 등을 쉬 없이 오가는 바쁘고 피곤한 나날이 40대에 들어선 오현주의 일상이었다. Mr. G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두 사람의 ‘축복받지 못했던’ 부부관계가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사진자료 5〉



오현주가 1981년 12월에 발급받은 화장-피부미용 관리사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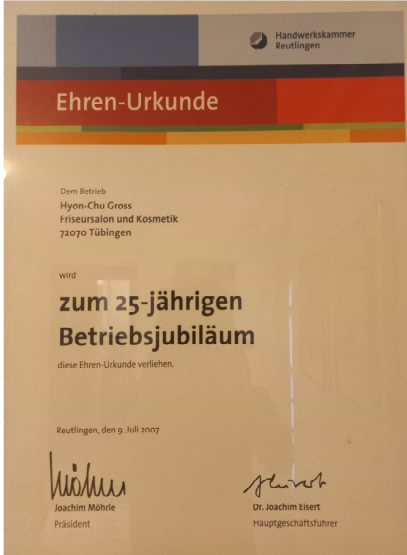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듬해에 오현주는 개인사업자로 변신했다. 임시방편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방 1개를 고객 공간으로 꾸며 임시로 개업했다. 1983년에는 저금 800마르크와 은행 용자를 종자돈 삼아 튀빙겐 시내 중심가에 52평 크기의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용자 받은 도이치뱅크에 가게를 압류당할 위기까지 몰렸지만, 은행을 옮겨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확장(102평)하여 운영했다. 미용업이 피부미용보다 더 짧은 노동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용실도 함께 차리는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가게 앞쪽에는 향수-화장품 판매대를 설치하고 뒤쪽 공간에는 피부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복층구조인 위층에는 미용실을 설치한 복합적인 비즈니스 공간이었다. 남편도 피부과 진료 간호인력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가게 이름은 자기 이름과 남편 성을 조합하여 H-C G. 라고 지었고, 개업 기념품으로 고객을 위한 커피·음료 잔도 디자인해서 주문할 만큼 신바람이 났다.

“나는 바보천치라서 겁이 없었네”

자기표현처럼 ‘겁도 없이’ 크게 시작한 개인사업에서 인력관리가 제일 힘들었다. 화장품 판매원 2명, 피부관리 보조원 2명, 미용사 1명 등 모두 5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특히 기술자(마이스터)인 미용사가 말썽을 피웠다. 임신, 알코올 중독, 상습적인 지각과 결근 등으로 애를 먹었다. 결국은 말썽꾸러기 미용사를 해고했는데, 양심을 품은 그녀가 “마스터 없이 영업한다”라고 <미용사노동조합>에 고발했다. “손기술로 돈 버는 직업은 자격증 있는 기술자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오사장은 자신이 직접 미용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1997년 5월에 150km 떨어진 콘스탄츠^{Konstanz}에 있는 미용사 교습학원 문을 두드렸다. 가족과 떨어져 3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실습과목에서는 합격했지만, 이론시험에서는 2번이나 낙방했다. 1997년 12월에 간신히 합격하여 이발사^{Friseur-Handwerk} 마스터^{Meister}가 되었다. 남편은 “늙은 당신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애처로워서 일부러 합격시켜 준 것 같다”라며 늦깎이 헤어 드레서를 격려해 주었다.

사장-피부미용관리사-미용사라는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오현주는 2011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개인사업에 몰두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열었고, 일요일 하루만 휴일이었다. 1974년에 독일에 온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바쁘고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늘그막에 시작한 미용사 자격증 공부에 정신이 없어서 가게 계약이 종료된 것을 깜박해 자신을 고발했던 미용사에게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넘겨준 뼈아픈 사건도 있었다. 시련을 삼키고 사업장 규모를 줄여서 시내 변두리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정도로 끈기와 성실을 잃지 않았다. 2007년에는 미용·화장품^{Friseur und Kosmetik} 비즈니스에서 25년 동안 헌신한 공로를 축하하는 명예-증서^{Ehren-Urkunde}를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Handwerkskammer}로부터 받았다.

〈사진자료 6〉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가
2007년에 오현주에게
수여한 25년 근속 개인
사업 명예-증서

개인 비즈니스 30년을 되돌아보면, 조건 없이 응원해 준 남편과 바쁜 업무를 견뎌준 자식들의 희생이 함께 만들었던 ‘패밀리 엔터프라이즈(Family Enterprise)’에 다름없었다. Mr. G는 10여 년 동안 남자 간호인력으로 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얻은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 학습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했다. ‘워킹 맘’ 부인이 사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자식 교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항상 말없이 기다려 주고 단 한 번도 ‘안돼!/하지 마!’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현주는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매여 집밥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식사는 퇴근 후 근처 단골식당에서 때우다시피 했다고 미안해했다. 오랜 자영업으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4명의 자녀를 잘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고, 노후생활을 위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관리할 만큼 재정적으로 편해졌다.

튀빙겐 시내에서 북쪽으로 언덕배기를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오 여사의 3층 집이 있다. 1997년에 저축과 남편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서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은행 용자를 받아서 장만했다. 원래는 2층이었으나 2004년에 3층을 얻는 확장 공사를 했다. 1층은 오 여사 부부가 사용하고 2층과 3층에 있는 방 5~6개를 단기 또는 장기 임대하여 손님을 받고 있다. 비교적 넓은 정원에는 장미와 피오니(복단)가 만발하고 텃밭에서는 고추와 깻잎 등 ‘한국적인’ 푸성귀가 자라고 있다. 오 여사는 왜 언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서독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거주권을 시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사회주택^{Sozialwohnung}’ 정책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기관이 사회주택 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은 일반/개인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주거보조금^{Wohngeld} 제도는 1965년에 서독에서 법제화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가족 수, 연간소득총액, 담보대출금 등을 합산하여 주거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월급 1,300마르크에서 월세로 월 500~700마르크를 지출했었다고 어렵פות이 션했다. 신혼 시절 정부 주택보조금을 받아 1977년에 첫 등지를 틀었던 공공아파트가 건축 10년이 지나 민간아파트로 전환되었다.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 여사는 1981년에 살고 있던 30평대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소유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0년대 들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탓인지 이 아파트를 팔아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자영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의 매력에 뜬 오 여사는 환갑이 지난 2005년 전후에 임대업 사업을 구상했다. 사업 은퇴 후의 돈벌이를 미리 걱정한 것이다. 2007년 뒤늦게 퇴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연금을 합쳐도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감각도 임대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

오 여사는 2009~202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되파는 과정을 반복하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004년 미국 투자-벤처 금융 기업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낮은 은행 이자로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투자(투기?)한 아파트가 수년 사이에 2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2023년 9월 현재 오 여사는 부부 공동 900평 단독주택 외에 본인 이름으로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오 여사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해발 350m 산 구릉 지역은 공기가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여 비싼 거주지이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오 여사는 땅의 가치를 쉽게 비유했다. 단독주택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 튀빙겐대학 의과대학과 병원도 도보 15~20분이면 갈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오 여사는 자랑했다. 참고로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자기 집 보유율은 노르웨이 80.3%, 이탈리아 72.4%, 영국 65.2%, 프랑스 64.1%, 독일 50.4%, 스위스 41.6% 등이다.¹⁹⁾

임대 수입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묻는 말에 오 여사는 ‘와타시私, わたし’라고 뜬금없이 일본어로 대답했다. 임차인/숙박 손님과의 예약과 사무 처리 등을 도맡고 있는 Mr. G에게 불만이 없는지 되묻자, “아내가 그 돈을 잘 사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웃었다. 오 여사는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라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고 그 웃음에 대답했다. 독일 보통 사람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등의 부담이 없는지 물었더니, 증여를 통해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궁리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에 신설된 (부동산과 별개로 부과되는) 토지세도 무섭지만, 10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나, 가족, 공동체: 미시적 사생활의 역사

30대 초반에 손님 노동자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부동산 임대업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 여사가 지난 반세기에 축적(안)한 독일-한국 커뮤니티와의 사회관계망은 어떤 모양일까? 간호조무사 시절 옛 동료들과는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며 초창기 튀빙겐 한인사회 구성에 한몫했을까? 나의 이런 상투적인 의문에 대해서 오 여사는 지역 한국인과는 왕래와 사교가 거의 없이 일종의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독일 남자를 ‘피어서’ 재혼한 자신을 ‘양공주’—그녀가 직접 끄집어낸 단어이다—취급하는 동료들의 날선 시선이 싫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하층민들이 도맡는 간호-간병인이라는 힘든 육체노동을 직업으로 가진 남편도 한국 사회에 내 세우기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오 여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국 전통 예절에 어두워 저지른 실수 또는 ‘나쁜 경험’도 한몫했다. 한국에서 방문학자로 온 가족을 반갑게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했을 때, 식사 예절에 어긋나게 거실이 아닌 부엌에서 커피를 서빙 했다는 비난 어린 뒷담화도 한국인과의 교제를 꺼리게 했다. 그리고 60년대 말 일찍부터 독일로 ‘유학’ 온 간호 학생, 한국에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단기 속성과정을 수료한 간호조무사—이런 내부의 ‘다른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구별 짓기가 오현주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바깥으로 튕겨낸 또 다른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신을 “알잡아 본다”라고 오해(?)하여 한인사회를 자발적으로 멀리한 오현주의 불통은 자식들에게 번졌다. 교포사회와의 접촉이 의도적으로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한 1.5세대—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한국 전통문화와 낮가림하며 자랐다.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문화·인종·가치관의 틈바구니에 끼여 정체성의 혼란을 외롭게 겪어야만 했다. 13세 때 독일에 온 첫째딸은 한국말을 이해는 하지만 쓰기와 말하기를 거의 잊어 버렸다. “엄마는 자기 사업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라고 오 여사에게 대들기도 했다.

둘째 딸도 ‘접경지대’에 방치된 희생자였다. 그녀가 학교로 가는 버스에는 튀빙겐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한국 간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동양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국적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엄마에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할게요!”라고 쏘아붙였다는 에피소드를 오 여사는 쓸쓸한 표정으로 들려줬다.

독일어를 전혀 모른 채 독일학교 시스템에 던져진 청소년 두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서독 연방정부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동반·초청한 자녀도 독일 아동과 같은 교육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손님 가족’이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적응하도록 ‘동화’보다는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공교육을 했다. 독일어로 진행되는 정규 수업과 구분하여 출신 국가별 ‘민족학급’을 편성해 모국어 수업을 병행하는 “이중전락”을 펼쳤다. 흥미롭게도 연방정부의 이중언어 교육방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실행한 모범 사례가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이 살았던 바덴-뷔르템베르크주(튀빙겐이 속한 광역 지역)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였다.²⁰⁾ 오 여사의 두 딸이 이 경우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튀빙겐 시내에 있던 ‘외국인 학교’에서 1년 동안 독일어 교육을 받았다. 정규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편입한 두 딸은 ‘왕따’ 같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다.

이때의 경험 때문일까? 둘째 딸은 보훔 대학교에서 언어교육학/한국학을 전공하여 외국인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밝아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 두 자매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으며 “독일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 독일로 도망(?)간 엄마가 남긴 빈자리에서 아빠와 살아야만 했던 3년의 세월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 옛 기억과 마주하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오 여사가 대변해 주었다.

다른 한편, 이주 2세대에 해당하는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 아이들이 빨리 독일어를 배워서 현지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은 일부러 멀리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개의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오 여사는 후회했다. Mr. G와 사이에 태어난 장남(D)은 앞에서 언급했던 어린 시절의 ‘인종차별적인 손가락질’이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결혼 후 가족여행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인들이 자기를 모국어도 모르는 ‘ABC(American Born Chinese)’로 취급했다고 냉소적으로 뱉었다. 싸구려 동남아 패키지 단체여행과 비교하면, 한국에 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서 지금까지 ‘어머니 나라’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덤덤히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한국적인 뿌리에 전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오 여사가 내게 귀띔해 주었다.

장남이 겪었던 자기 정체성의 분열과 인종차별적인 피해는 3세대에게도 대물림되었다. 오 여사 장녀의 아들인 외손자 J(1999년생)도 외삼촌 D와 비슷한 나쁜 기억을 성장통처럼 삼켜야만 했다. 어린 시절의 J는 자신을 반-독일인 + 반-한국인이라기보다는 100%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별나게 한국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김새를 따져 ‘중국인’이라는 놀림을 당하면서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를 “극복해야 할 나쁜 감정(bad feeling)”으로 여겼다. 본인이 바꿀 수도 없는 차이점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외국인(alien)’ 취급하는데 상처받았고, ‘출생지(origin)’를 묻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청년이 될 무렵부터는 이런 ‘타고난’ 약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자 J는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자신의 ‘외모’를 빌미 삼아 던지는 무례한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접수하여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삼았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타자의 호기심에 자신도 접속하여 좀 더 깊은 사귀기로 발전시켰다. 좋은 싫든 자신의 일부가 된 한국 전통·문화를 미래 아들딸(4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전달하겠다고 J는 다짐했다. 오 여사의 손녀 손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외손자 J는 외할머니는 SNS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음성 파일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젊은 세대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했다.²¹⁾

“어머니는 제 롤-모델입니다”

막내딸(M)이 어머니에게 갖는 감정은 복잡하고 이중적이다.²²⁾ “한편으로는 큰 감사, 존경, 감탄과 이해”를 보내는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고난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M의 회고에 따르면, 어머니(오현주)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사업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빴지만, 자식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릴 때부터 승마, 스키, 발레, 악기, 윈드서핑 등을 배우도록 주선했고, 아들딸이 기죽지 않도록 필요하면 직원이나 친한 이웃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서 돌보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삶은 M에게 당황함을 안겨줬다. ‘입양아’로 알고 있던 두 언니와 자신은 ‘이복 자매’ 관계임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 교포사회와 멀리하는 어머니 탓에 튀빙겐 한인 교회²³⁾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중도 포기한 아픈 기억도 있다.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고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다른 한국인 부모님과 달리 가게 운영에 쫓겨 응원하지 못하는 엄마를 원망하며 한국말 배울 기회를 놓친 것은 큰 후회로 남는다.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M은 자신들이 다른 평범한 독일 가정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으로 양육되고 있다고 느꼈다. 독일 친구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듬뿍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자기 형제자매들은 “항상 공손한 거리와 위계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앞세우는 “두 문화에 걸쳐 있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두 문화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난관을 마주하게” 됨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다행스럽게도, 바쁜 여성 사업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대학생-직장인-아내와 엄마라는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M은 고백했다. “여성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기꺼이 싸울 줄 알고 이뤄내는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미성년 시절의 애증^{愛憎} 관계는 ‘마이 웨이’를 실천했던 여성 선배-동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으로 마침내 승화되었다. M이 자기 아들딸의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 한 자씩을 끼워 넣어 각각 ‘Tom Hyon’과 ‘Ben Chu’로 지은 것은 개인 오현주의 삶에 보내는 헌정^{獻呈}이었다.

반세기 가까이 튀빙겐 교포사회와 의도적으로 단절된 일상을 살았던 오여사가 한국(인)과 다시 선이 닿은 것은 5~6년 전부터이다. 부부가 거주하면서 공유-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단독주택에 2017년에 처음으로 한국 손님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대부분 투숙객은 다른 도시에서 튀빙겐으로 출장 온 회사원이나 공부하러 온 대학생, 튀빙겐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등 독일인 단기숙박객이었다. 그런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유학하러 온 한국 대학원생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받아들인 이후 한국인 손님들과 인연이 닿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에게도 홍보되면서 한국인 교환학생과 방문학자 등이 손님으로 머물렀다. 이들은 장기 투숙객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면서 한국의 소식을 한국 음식 등과 교환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줄을 놓아주어서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비공식적인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 여사는 덧붙였다.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

어느 날 오 여사는 자신이 직접 담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우리 방을 노크했다. 대구의 이름난 장인이 만든 값있는 장독을 특별히 장거리 구매하여, 아마존을 통해 국제소포로 받은 귀한 효소에다가 튀빙겐의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좋은 물로 빛은 가양주^{家釀酒}라고 자신의 수제품을 선전했다. 남편 Mr. G를 포함해서 아들딸 사위 며느리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 가족 모임이 재미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어른이 주는 술마다 덤석덤석 받아 마시는 내가 어여뻔을까. 아닐 것이다. 오 여사가 정성으로 숙성시킨

막걸리는, 정원 귀퉁이에 키우는 깻잎처럼, 자신마저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국적인 것’에 대한 오마주 또는 향수병 달래기의 상징적인 의례이리라. 염치가 없어 팔순 할머니가 내미는 막걸리를 사양하는 시늉을 하니,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라고 오 여사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한 오 여사에게 막걸리 담그기는 호사스러운 취미 아닌 취미이다. 십 년이 훨씬 넘은 벤츠 고물 밴을 아직도 털털거리며 끌고 다니는데, 디젤 엔진 차량의 도회지 운행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들 가족이 사는 슈투트가르트에 갈 수 없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낀 돈을 ‘할머니’ 오현주는 가족에게 베푼다. 멀리서 늘 걱정해주고 잘 살기를 응원해주는 이종사촌 동생에게 두유 만드는 전기제품과 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었다. 나는 막내딸 점심 파티에서 만난 며느리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오 여사의 ‘따뜻한 손’을 보았다. 첫째(손녀)가 쓰던 고장 난 유모차를 둘째(손자)에 힘들게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할머니가 독일 며느리에게 주는 육아용 선물이다.

귀국하기 하루 전 오후에 집주인 부부 정원에서 번개 모임을 했다. Mr. G가 특별히 사 온 ‘독일식 순대’를 안주 삼아 남은 막걸리를 나눴다. 낮술 탓일까. 오 여사는 장남에게 걸었던 남다른 기대에 못 미치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다른 여자 자식들과는 다르게, 아들이 베를린에서 대학 다닐 때 매달 용돈을 넉넉히 주었다. 딸들처럼 자립한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특별히 배려했다. 아들에게 결혼 후에는 자기 집 2층에서 함께 살 것을 권유했지만, 도회지 생활이 더 좋다는 핑계로 현재 슈투트가르트 좁은 아파트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도 께빚한 것은 결혼 후에 상의도 없이 아들 맘대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아내 성을 선택한 일이다. 손녀 손자에게 친할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어 ‘집안의 대가 끊기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오 여사는 말했다.

〈사진자료 7〉



오현주 집 정원에서 필자가 2023년 6월에 찍은 부부 사진.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다.”

오현주는 독일 체류 30년 만인 200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개인사업으로 짬이 당연히 없었지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오 여사는 “한국에 갔다가 독일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늘 두려웠다.”라고 말했다. 옛 남편과의 숨바꼭질 또는 권위적 국가권력에 대한 피해의식?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의 한국방문을 한 세대 동안 망설이게 했는지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첫 방문에는 남편 Mr. G 대신에 막내딸 M이 동행했다. 제2세대 중에서 예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문화 전통에 유난한 애착과 호기심을 가졌던 그녀가 가족 대표로 뽑힌 셈이다. M이 9살 때 다니던 한인교회의 한글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엄마의 뒤늦은 보상이었을까? M은 첫 한국 기행 또는 ‘엄마의 한국 나들이’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마다 혹은 제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매 순간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 또 다른 삶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인생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고 챙겨주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M은 한국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가 ‘이모’, ‘삼촌’, ‘누나’라고 서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삼매경에 빠지는 낮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튀빙겐에서 숨어 살던 외톨이가 서울에서 친척을 만나 갑자기 감정적이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신기하게 관찰했다.

오 여사는 이후 2007년, 2012년, 2022년 등 모두 4번 한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에는 남편 Mr. G와 막내딸과 사위가 동행했고, 세 번째 방문에는 막내딸, 손녀 손자와 함께 다녀왔다. Mr. G에게 한국방문 소감을 묻자, “아내의 친척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너무 다른 나라였다.”라고 짤막하게 응대했다. 한국 여행의 단골 동반자인 막내딸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고향’인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그리운 이모 이모부와 함께 옛 추억에 빠지기도 했다. 막내딸 M은 처음에는 자기도 외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식 예의범절에 서툴러 친척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서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독일의 어느 도시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고 총평했다. 주인공인 오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친 한국방문 인상을 묻자, “어릴 때 고아가 된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친척들을 반갑게 만나 잘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지만,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오히려 낯설었다.”라고 종합 평가했다. 제주도 외할머니가 단골이셨던 점쟁이 예언처럼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이 자기 팔자인 것 같다고 오현주는 혼잣말처럼 증언거렸다.

구술사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오 여사가 ‘독일에서의 파란만장한 반세기

삶'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로 이주해 온 결정을 후회하거나 살면서 겪었던 차별이나 나쁜 기억은 없었을까?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서독)이 안전, 주택, 교육, 생활수준 등에서 훨씬 좋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뻐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독일어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유일한 불편한 점이였다. 이주노동자-자영업자로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식-손자 세대까지 이어진 인종차별적인 배타성과 종업원에게 고발당해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했던 사건은 아직도 속이 시리다. 독일 남자 손님 요구대로 전기 칩으로 안면 피부 털을 하나하나 뽑는 시술을 하면서 맡았던 살타는 냄새 때문에 아직도 독일의 그 유명한 소시지를 잘 먹지 못한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를 제외한다면 자신을 '독일 시스템' 혜택을 받은 행운아라고 확신했다. 약간의 개인적인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그것은 독일 사회의 구조적(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탓이 아니라 자기 개인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다.

오 여사는 독일인 평생 친구를 사귀었거나 가깝게 참여하는 모임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라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신혼 시절에 잠시 왕래했던 남편 친구들과 간호(보조)사 직장 동료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유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늙은 부부만 남았다. 그리고 ‘음식 문제’만을 대입해 보면 오 여사와 Mr. G 사이에도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있다. 오현주는 이제는 목이 까칠까칠해서 더 이상 독일 빵을 주식으로 삼지 못하여 간단한 한국요리를 일상적으로 먹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 ‘독일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한국 커뮤니티와도 단절되고 독일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오현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까? 일반적으로 이주민-디아스포라는 ‘정체성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초국적인’ 자기 주체성을 만들어 간다.²⁴⁾ 오현주에게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녀는 독일 이주를 또 다른 ‘삶의 기회’로 환영하여, 능동적인 직업적 변신으로 현실을 자기 의지대로

개조하고, 국제결혼 여성에게 쏟아지는 내부(한인사회)와 외부(독일사회) 공격을 자발적인 ‘외톨이 되기’라는 자기방어적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정체성 협상’의 에움길을 완성했다. 초국적 자기 정체성의 민족적·문화적 뿌리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보충 질문에 오 여사는 ‘일본’이라는 또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오현주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난처해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제주도에 돌아와서도 15살까지는 일본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소녀-청소년이 간직한 일종의 ‘노스텔지어 아이덴티티’일까? 여든 플러스 나이에 재발견한 무의식적인(?) ‘일본 친화성’은 그녀가 20년 전인 2007년에 남긴 다음과 같은 민족주의-글로벌 시각의 발언과 어긋난다.

“제 인생의 나무는 한국 소나무에 뿌리를 두고, 독일 참나무의 튼튼한 줄기와 같으며, 내 자식과 손주들이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튀빙겐, 보훔, 에센, 베를린, 바이블링엔, 만하임, 하일브론, 뒤스부르크에 걸쳐 건강한 나뭇가지를 뻗어냅니다. 제게 조국과 고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닮아있습니다.²⁵⁾”

위 인용문은 2007년에 출간된 『내국인: 외국인은 어떻게 튀빙겐 시민이 되었나』라는 소책자에 실린 오현주의 인터뷰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 자신의 한국적 뿌리가 독일 이주 이후에 자손들을 통해 어떻게 독일 전역으로 갈래를 쳐서 뻗어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출발점이 한국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오현주는 팔순이 넘은 지금(2023년)에 왜 민족주의적 감정이 퇴색했을까? 한국에 관해 간직했던 ‘원형’ 기억이 독일에서 ‘생성된 기억’과 섞여서 국적 없는 ‘재구성 기억’으로 변질 또는 격상된 것일까?²⁶⁾ ‘조국의 배반자’를 대하듯 따지는 나에게 그녀는 “민족이나 나라보다는 평생 애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파독 간호인력 단체와 한인교포가 펼치는 각종 사회-정치(민주화·통일)운동과는 저만치 떨어져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살았다는 변명 아닌 항변이다. 잠들어 있거나 깡그리 잊힌 '민족주의적 감정'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처럼, 나는 '한국 정부는 만 65세가 지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가 원한다면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최신 뉴스를 알려줬다. 오현주는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라고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그리고 독일 교포들이 귀국하여 살고 있는 경남 남해의 '독일인 마을'에도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의도는 없지만)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오며: 흠어진 기억, 다시 쓰는 이야기

구술사는 말을 걸고 기록하는 연구자(역사가)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연구대상자의 공동작업이다.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람과 '기억'의 실타래를 주관적인 무늬와 패턴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함께 연출하는 춤 또는 씨름이다. 역사가가 주제넘은 개입과 유도 질문으로 '살아있는 사료'를 압박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 구술자는 가능한 정직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하찮거나 위대했던) 삶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삽입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오현주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구술면담을 준비했다. 개인/가족사진 자료, 자격증과 같은 증빙 문서, 자기 이야기가 실린 팸플릿, 가게 터 답사와 개인사업 때 사용하던 용품 등과 같은 '증거^{evidence}'를 나에게 제공했다.

풍부한 구술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나의 논문'으로 윤색, 편집, 번역, 또는 오남용한다. 내가 결정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이 구술사의 장르이다.²⁷⁾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1883~2023년}을 기념하여 온갖 나쁜 조건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범적인 사례연구에 맞춤형에 꾸밀 것인가? 고아-공순이-이혼녀-양공주로 차별받으며 숨어 살았던 '하층민 여성'의 얼룩진 삶을 복권 시키는 '아래로부터의/서발턴 역

사'로 연출할 것인가? 구술된 콘텐츠를 어떤 격자에 끼워 넣어 어떤 앵글로 편집해야 좀 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구술사로 갈무리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마주하면서 이 사례연구에 내포된 의의, 유용성, 기대효과 등을 가족사, 공공역사, 이주-이민사, 구술생애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등이 교차하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 과잉 담론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가난한 '조국'의 볼모가 되어 독일에 '수출'된 해외인력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대 담론은 그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현주는 분단되고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독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혼녀라는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 부러진 무거운 날개를 꺾매고 닦아서 그곳으로 날아갔다. 자랑스러운 조국의 딸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외길 모험이었다. 오현주가 한국말을 매개로 하는 언어공동체를 가족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했고, 한국의 문화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민족주의적 실패'라기보다는 현지 적응의 '글로벌 전략'이었다. 근대화와 민족주의 담론이 공범이 되어 하찮게 취급·삭제했던 미시적 사생활 역사의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하면, 오현주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둘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말할 수 있는 서발턴'²⁸⁾이 서술하는 '공공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디아스포라 사회학자의 분류법을 적용한다면, 한국과 독일에서 살아냈던 그녀의 전 생애는 통합과 동화에 편입되지 못한 '고립과 주변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수렴된다.²⁹⁾ 일본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가까운 혈육이라고는 이복동생과 외할머니밖에 없었고, 청소년기에는 타지를 홀로 떠돌며 제 밥벌이를 했던 '불쌍한 인간/레미제라블'^{Les Misérable}이 있었다. 20대 후반에 이혼하여 간호조무사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착한 독일 남자와 재혼했지만, 오현주는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민족공동체에서도 소외된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서발턴이었다. 오현주의 이런 독특한

주체적인 위치가 역설적으로 주류 역사에서 제외된 전형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이야기를 구술할 힘이며 자격이다. 그녀의 구술생애사가 공공역사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이유이다.

셋째, 여성 이주노동자 오현주의 증언은 1970년대 한독관계사의 맨얼굴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인력수출’의 역사적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파독 간호사-광부 선발 절차에 작동했던 개인적인 인맥과 뒷거래 관행 등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다. 파독 간호인력의 주요 업무와 근무지, 급여와 주거환경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당사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깜깜이 해외 취업’이었다는 사실도 오현주의 구술로 재확인된다. 제각기 다른 배경/동기/목표를 품고 독일-미국-중동 등지에서 이주-정착 노동자로 고생하며 꿈꾸었던 사례연구(구술사)가 더 많이 채집된다면, 제3공화국-유신정권이 지휘했던 국민-국가 만들기 운동이라는 큰 얼개 그림의 무늬와 색깔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현주의 구술사는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물어 보는데 결코 생략할 수 없는 한 조각 모자이크이며 퍼즐puzzle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넷째, 이 글은 주인공 오현주의 독백이 아니라 대가족의 진술과 증언이 보태진 입체적인 구술생애사라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선행 연구가 초창기 독일 이주노동자(광부 포함) 본인의 파란만장하고도 입지전적인 이야기에 한정되었다면, 오현주 구술사는 1.5세대(한국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 2세대(재혼하여 독일에 태어난 장남과 막내딸), 그리고 3세대(손녀-손자)가 다 함께 입을 모아 합창하는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주의에 젖은 어머니 오현주와 딸들의 애증 관계, 어머니와 장남의 갈등과 충돌, 한국적 뿌리를 대하는 세대 간의 다른 가치관 등—해외 이주-정착 3세대가 펼치는 일종의 ‘가족 로망스’³⁰⁾를 파편적으로나마 스케치하려고 노력했다. 오-G 부부가 낳고 기른 총 12명의 2·3세대가 불협화음으로 부르는 ‘가족의 노래’는 다문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잉태(발명)하는 ‘새로운(정상)’ 가족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을 자극한다.

다섯째, 디아스포라 오현주에 대한 구술생애사는 직업으로서의 역사가의 본질(의무)과 작업 관행을 곱씹어 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사실과 진리를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회과학자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과거’가 남긴 희미하고도 주관적인 ‘흔적_{trace}’을 감정 이입적으로 되짚어 복원시키려는 일종의 —막스 베버가 주창한— 문화과학자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선호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여기에’ 없는 그리운 사람과 알게 모르게 옷깃을 스쳐 지나간 인연에 왜 나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던가! 그(녀)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반복적으로 진술했지만, 왜 나는 아직도/처음처럼 그 메시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현주 막내딸 M의 멋진 표현을 빌린다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 ‘나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들은 말하지 않는 이야기…’ 이런 흩어진 기억과 ‘소리 없는 아우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하는 나는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고쳐 쓰여야만 더 잘 보이는 안개 속의 거울”이라는 결론 아닌 결론으로 미끄러진다.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육영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호모미그란스』 29, 이주사학회, 2023.

〈저자소개〉

육 영 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저자 육영수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대학원 문화연구학과·독일유럽학과 교수이다.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시애틀)에서 근현대 서양 지성사 전공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역사이론과 방법론, 여성사, 과학기술사, 트랜스내셔널·탈식민주의 역사 등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교수(2009~2010)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와 벨기에 루뱅가톨릭 대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영어로 강의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와 튀빙겐 대학교,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등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한국출판학술대상을 수상(2010)했고, 한국서양사학회 회장(2018~2020)을 역임했다. 저서로 『근대유럽의 설계자: 생시몽·생시몽주의자』(2022), 『지식의 세계사: 베이컨에서 푸코까지, 지식권력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왔는가』(2019), 『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프랑스혁명의 문화사』(2013), 『책과 독서의 문화사: 활자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2010) 등을 출간했다. 공저로는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탐구』(2017),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2017),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2002) 등이 있다. 서양사 전공자의 시각으로 근대한국학의 복잡하고 뒤엉킨 계보를 추적·분석한 『근대한국학의 갈래와 뿌리』(가제)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